

세계 뮤지션이 한 자리에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내달 1일부터 5·18민주광장 일대 16개국 32팀 뮤지션 동구로 모여 1위 골든버스킹상 상금 5000만원 초청공연·컨퍼런스 부대행사 다채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글로벌 축제도시 광주 동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5·18민주광장(저니 스테이지), ACC하늘마당(그린 스테이지), 상무관 앞(캠핑 스테이지), 전일빌딩245, 동구인문학당 등 동구의 핵심 관광거점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해 진행된다. 네 가지 맛의 향연 '샐러드 보울'이라는 콘셉트 아래, 라이브 경연대회, 유명 뮤지션 초청공연, 음악산업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수준 높은 라이브 경연과 실력파 뮤지션 초청 공연

버스킹 월드컵 경연은 지난 5월 전 세계 뮤지션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총 58개국 781팀(국

내 534팀, 해외 247팀)이 접수된 바 있다. 열띤 경쟁 속에서 예선을 거쳐 32강 본선 티켓을 거머쥔 16개국 32팀(국내 13팀, 해외 19팀)은 오는 10월 2일 동구인문학당에서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 일원의 3개 특설무대에서 수준 높은 라이브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총 상금은 1억원으로 1위인 '골든버스킹상'은 상금 5000만원, 2위 '실버버스킹상'은 2000만원, 3위 '브론즈버스킹상'은 1000만원, 관객이 참여하는 '시민인기상'은 100만원 등 총 9개팀이 수상한다.

초청공연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뮤지션들로 채워졌다. 바스크 민속음악을 현대악기와 결합, 댄서들과 함께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유로 포크 최고의 유럽 밴드 '코론치(스페인)'와 나폴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트리오 '수오노 다에레(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블루스·록 밴드 '신촌 블루스'가 버스킹 월드컵 무대에 신다. 또 청춘들의 공감을 이끌어 한국 모던록의 계보를 잇는 '몽니'와 지난 해 버스킹 월드컵 '총장버스킹상' 수상자인 '김순영 재즈랩'이 결선 축하무대에 오른다.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 개최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인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Asia Music Summit in Gwangju)'를 전일빌딩245에서 올해 처음 개최한다. 광주 동구를 글로벌 음악산업 교류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25개국 회원을 둔 뮤직커넥트아시아(MusiConnect Asia), 전 세계 23개국 뮤직마켓이 가입된 글로넷(GloMMnet·Global Music Market Network) 등 글로벌 음악산업 연합회와 공동 주관했다.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유럽·남미 등 13개국 축제 감독·기획자 18명이 참여한다. 10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버스킹 월드컵을 통한 지역 음악산업 발전 방안' 등 음악산업과 관련한 6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10월 3일에는 해외 초청인사 대상 팸투어도 진행한다.

또 한국·일본·태국 3개국 16팀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아시아 쇼케이스'도 개최된다.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에 참여한 전 세계 음악산업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로, 뮤지션들에게는 글로벌 음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 이

공연에는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3팀), 전주세계소리축제 연계 뮤지션(1팀)도 소개된다.

●청소년 경연대회 '틴틴버스킹', 시민 참여 '오픈마이크', 스트릿 댄스 등 부대 프로그램도 다채
부대행사로 청소년 경연대회 '틴틴버스킹'이 10월 6일 ACC하늘마당 무대(그린 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 전국에서 모인 댄스, 밴드, 보컬 등 11개팀의 무대가 기대를 모은다.

또 버스킹 월드컵 참가 뮤지션들은 축제 하이라이트 기간인 10월 5일과 6일에 총장로우체국과 동명동 광주폴리(아이 러브 스트리트), 금남로 일원에서 프리 버스킹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총장로우체국 앞에서는 노래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를 대표하는 스트릿 댄스팀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버스킹 경연 무대 열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무대 주변에서 다양한 플리마켓도 진행된다. 국내·외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버스킹 라운지와 애프터 파티도 눈길을 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사람들에게 'KIA타이거즈' 란?

광주문화재단 예술시민 아카데미
내달 2일 빚고을 아트스페이스
정윤수 스포츠칼럼니스트 강연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KIA 타이거즈. 광주문화재단은 'KIA타이거즈'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살펴보는 강연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빚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에서 열리는 '스포츠의 추억, 도시의 기억: 광주와 타이거즈'가 그것이다.

올 시즌 KIA타이거즈는 단일 시즌 구단 최다 홈 관중 기록, 시즌 최대 매진 기록을 세웠다. 특히 김도영 선수가 보여준 맹활약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치어리더들의 '빼끼빼끼' 춤까지. 팀과 구단, 응원단 모두가 광주에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무등의 판을 벌이다' 제1강 주제를 '광주와 타이거즈'로 잡았다.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경험하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관계와 평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번 강연은 스포츠칼럼니스트이자 성공회대 재직 중인 정윤수 교수가 진행한다. 스포츠는 현재 도시에 물든 격렬한 감정이자, 그 도시에 새겨진 역사·정치적 흔적과 같다. 이 시간에는 세계 주요도시의 스포츠와 함께 광주와 타이거즈의 추억과 기억을 되새겨 본다.



'스포츠의 추억, 도시의 기억: 광주와 타이거즈' 강연 포스터.

수강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jNcjmQqFNSdZsJhAA>)으로 접수 받으며, 유선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강좌별 선착순 75명을 모집하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대기자로 등록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j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광주문화재단과 (사)인문도시연구원 시민자유대학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무등의 판을 벌이다'를 주제로, 광주라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무등(無等)'의 독특한 개념을 탐구한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총 5강이며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현대미술 궤적 한눈에 '메이저 물결' 전

내달 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전위예술 아버지 이승택 등 8인

무등현대미술관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기념해 로컬전시를 기획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무등현대 Art Valley Project'를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부 시작예술작가이자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위원을 역임한 이명환의 기획으로 '한국 현대미술-메이저 물결'전을 오는 10월 20일까지 선보인다.

무등현대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완성시킨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히 로컬적 공간에 집중하기 위해 무등산의 아이덴티티를 전시에 반영하고자 했다. 1부 전시에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다양한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매체를 선보인다.

무등현대미술관은 동구 중심사길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이승택 작 '무제'. 무등현대미술관 제공

고려인 이주 서러움 21세기 심청가로 풀어내

전통예술공연 '판: PAN'
내달 4~5일 ACC 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4~5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새로운 형식의 전통예술공연 '판: PAN'을 선보인다.

'판: PAN'은 동시대 사회 현상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예술 언어로 무대 위에 펼쳐내는 프로젝트이자 공연이다. 이번 '판: PAN'에서는 첫 번째 시선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과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 모여살았던

던 광주광역시 월곡동을 조명한다.

'제28회 한중일 베세토 페스티벌'의 한국 참가작인 '판: PAN'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역사를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심청가'의 서사와 연계했다. 공연은 고려인 이주 역사를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부터 용궁에서 받은 환대까지의 과정에 담겨 소리와 안무, 연주가 어우러진 다양한 형식의 예술표현으로 형상화한다. 판소리, 피리, 춤, 영상, 구술 등을 통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고려인을 '환대'라는 키워드로 서로 연결한다. 또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유

지하게 하는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 이주를 거치며 중앙아시아 현지인들과의 교류와 환대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1937년 삶의 터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아픔을 무대에 담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고려인들을 직접 만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그들의 현재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한다.

한편,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공연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28회 베세토 페스티벌'이 ACC에서 열리며, 한국작품으로는 전통 예술공연 '판: PAN'과 연극 '부동산 오브 슈퍼맨'이 관객과 만난다. 도선인 기자